

“자금부족” 중소기업 44%만 설상여금 지급...평균 40만원

중기중앙회, 올해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 중소 37% “자금 어려움”...판매·매출 부진 많아 올 설 평균 2억2550만원 필요...2580만원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25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44.3%만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1인당 평균 40만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36.6%로 '작년과 다르지 않다'(34.9%)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난해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26.0%)와 비교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70.3%) ▲원·부자재 가격 상승(66.9%) ▲인건비 상승(34.5%)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7.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5.1%였다. 지난해 설(85.6%)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일할 하다'라는 응답이 38.8%를 차지했다. '곤란하다'라는 응답(25.6%)보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35.6%)이 더 높았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고금리(66.9%)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33.5%)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없음(28.4%)은 지난해 설(50.8%)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1.4%) 응답은 뒤를 이었다. 자금조달 여건은 어렵지 않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금 조달 부담이 커

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25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평균 258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65.0%) ▲금융기관 차입(29.0%) ▲결제연기(27.5%)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없음'도 14.5%에 달했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4.3%로 나타났다. '아직 미정'인 업체도 17.0%에 달했다.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40만원으로 지난해 설(44만7000원) 대비 4만7000원 감소했다.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61.7%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96.1%의 업체가 설 공휴일(21~24일)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했다. 3.9%의 업체는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하며 휴무일은 평균 2.3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중소기업은 금융이용 관련 지원 요청사항으로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며 “중소기업 설 자금사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자금조달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조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대한항공 4월 마일리지 개편...고객 부담 정말 커질까?



대한항공이 오는 4월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앞둔 가운데 일부 고객들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제도 개편을 통해 마일리지 공제율을 '지역별'이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했는데,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대신 단거리 노선은 공제 마일리지 가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를 대체할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많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마일리지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제도인 '스카이패스'를 대대적으로 개편 운영한다. 당초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췄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제도의 골자는 마일리지 공제율을 '지역별'이 아닌 '거리별'로 바꾸

장거리 노선 차감 마일리지 늘리고, 단거리는 줄여

었다는 점이다. 가령 미주 노선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으로 묶여 미국 내 어느 곳이든 똑같은 공제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리를 계산해 차등 공제를 한다.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단거리 노선은 공제율이 축소되는 반면 장거리 노선은 더 많은 마일리지 가 필요하다. 예컨대 평수기 뉴욕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일반석 3만5000마일, 비즈니스석 6만2500마일, 일등석 8만마일이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일반석 4만5000마일, 비즈니스석 9만마일, 일등석 13만5000마일로 확대되며 1만~5만5000마일리지를 더 필요로 한다.

반면 단거리 노선인 일본 오사카는 차감 마일리지 가 1만5000에서 1만2500으로 줄어든다. 베트남 다낭도 공제 마일리지 가 2만마일에서 1만7500마일리로 축소된다.

문제는 항공사 고객 대부분이 단거리 노선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고, 장거리 노선에서는 마일리지를 소진한다는 점이다. 특히 단거리 노선은 굳이 마일리지를 쓰지 않아도 저비용 항공사(LCC)로 대체할 수 있어, 이 구간 공제율을 줄인 것은 고객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는 지적이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경우 일반석보다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을 더 선호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좌석을 승급할수록 공제율이 더 크해진 것은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거리가 가까운데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마일리지 공제율을 낮추고, 거리가 멀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던 공제율은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성공할 경우 마일리지 횡포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유일한 경쟁 상대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가격 인상, 마일리지 제도 등에서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양사 합병이 이런 고객 마일리지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30년만에 양대 항공사 체제가 깨지는 만큼,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제도 등 고객 입장에서 편익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사과가 실하네 1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설맞이 우리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을 찾은 시민들이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포스코 역대 최대 규모 美달러화 채권 발행 성공

원화·외화 채권 성공적 발행 통해, 선제적 자금 조달 및 성장 투자 재원 확보

포스코가 2023년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지난 9일(현지시간) 美달러화 채권 발행에 나서 3년 만기 7억달러, 5년 만기 10억달러, 10년 만기 3억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억 달러규모 3개 트랜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

금리는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미국채 3년물은 +190bps, 5년물은 +220bps, 10년물은 +250bps의 유리한 가산금리로 발행된다.

포스코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작년 12월 15일(현지시간) 美연준의 기준금리 50bps 인상 단행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국내 기업의 美달러화 공모

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우량채권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

포스코는 작년 7월 10억 美달러화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으며 이번 20억 달러 발행을 통해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 및 대외신인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이번 포스코의 가산금리는 올해 해외 채권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 5월에 2012년 국내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3조 9,700억원의 매출

주문을 받으며 원화 7,000억원 무보증 공모 사채도 발행했다.

포스코는 연이어 원화 및 외화 채권발행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추가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채권발행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지에서 70개 이상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On-Off Line) 로드쇼를 실시하여 글로벌 철강 투자 계획과 성장전략 및 포스코의 우수한 신용도를 적극 설명하였다.

동부채재본부 김승호 기자

쉴리침대, 매트리스 '호텔 디럭스' 롯데백화점 단독출시



클레이오II FL 플러시(plush)의 리뉴얼(새단장) 제품

쉴리침대는 프리미엄 매트리스 신제품 '호텔 디럭스'를 롯데백화점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매트리스는 클레이오II FL 플러시(plush)의 리뉴얼(새단장) 제품이다.

특히 화이트 컬러의 패널과 그레이 보더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호텔 침실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호텔 디럭스에 사용된 스프링은 티타늄 소재의 6회전 포스텍 기술을 적용했다. 좌우

흔들림이 적고 뛰어난 지지력이 특징이다. 스프링을 통으로 감싸 충격을 흡수하는 쉴리침대 고유 기술인 '엣지가드'로 옆 사람이 뒤척일 때 발생하는 흔들림을 줄였다. 패널과 보더에는 렉서리함을 극대화한 패브릭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높이는 30cm다. 매트리스 충전재는 하드폼과 슈퍼소프트폼이 함께 들어가 있어 누웠을 때 부드러운 쿠션감을 느낄 수 있다.

이슬비기자

투썸플레이스, 2023 설 선물세트 7종 출시



투썸플레이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2023 설 선물세트 7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 선물세트 7종은 희망(Hope)과 행복(Joy)을 테마로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프리미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투썸의 '에어리스트(aLIST)' 제품과 함께 머그 또는 텀블러를 포함했다.

먼저 에어리스트 제품과 머그로 구성된 투썸 JOY 기프트세트 3가지 구성으로 선보인다. 투썸 JOY 커피x머그 I는 스틱커피와 2가지 색상(화이트·옐로우)의 투썸 굽머그 세트가 포함됐다.

투썸 JOY 커피x머그 II는 텀블러링 머그를 두 가지 종류의 스틱커피와 즐길 수 있다. 투썸 JOY 커피x머그 III는 투썸의 시그니처 블렌드인 블랙 그라운드와 아로마 노트 캡슐커피와 화이트 머그 세트 함께 꾸렸다.

실용성에 중점을 둔 투썸 HOPE 기프트세트도 3종으로 만날 수 있다. 투썸 HOPE 커피x텀블러 I는 스텝이 있어 휴대성이 좋은 텀블러와 핸드드립 커피, 스틱커피로 구성했다.

투썸 HOPE 커피x텀블러 II는 다채로운 풍미의 핸드드립 커피와 라떼에 운전 시 편의성을 강화한 텀블러를 담았다. 투썸 HOPE 커피x텀블러 III는 스틱커피와 핸드드립 커피 구성에 대용량 텀블러를 포함했다.

스티커피 단일 상품으로 구성된 실속형 선물세트 투썸 JOYxHOPE 스틱커피도 선보인다. 투썸하트 정회원일 1월 24일까지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투썸하트 앱으로 머그 교환권이 발행된다. 2월 5일까지 매장 예약 및 교환 가능하다.

김재환기자